

# 제3차 지역복지정책포럼

2014. 8. 19.(화) 15:0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

## 제3차 지역복지정책포럼 일정

- 일 시: 2014.08.19.(화) 15:00~17:30
- 장 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
- 주 제: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 모색
- 포럼 일정

15:00 ~ 15:30	개회사
좌장	김승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5:30 ~ 16:40	주제발표
발표자 및 주제	1. 지역밀착형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정무성   송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 지역 내 사회적경제 생태계 현황 및 활성화 방안 (마포구사례를 중심으로) 홍진주   마포사회적경제생태계조성지원사업단 센터장
16:40 ~ 16:50	휴식시간
16:50 ~ 17:30	토론
토론자	이철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은애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 센터장
17:30	폐회

---

# 목 차

---

<b>1. 지역밀착형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b>	<b>1</b>
정무성   송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b>2. 지역 내 사회적경제 생태계 현황 및 활성화 방안.....</b>	<b>18</b>
<b>(마포구사례를 중심으로)</b>	
홍진주   마포사회적경제생태계조성지원사업단 센터장	

<발표 1>

# 지역밀착형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정무성 | 송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지역밀착형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정무성 (송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 Contents

- 1 사회적경제의 개념과 구성요소
- 2 사회적경제의 미남적 지평
- 3 사회적경제의 이론적 접근
- 4 사회적경제의 정책적 함의
- 5 한국에서의 사회적경제 흐름
- 6 사회적경제의 지역화
- 7 지역밀착형 사회적경제의 발전과제

# 1. 사회적경제의 개념과 구성요소

구성원이나 공공을 위한 목표, 경영의 자율성,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 수익 배분에 있어서 자본보다 사람과 노동의 증식이라는 네가지 원칙을 따르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상호경제조합, 민간단체에 의해 수행되는 경제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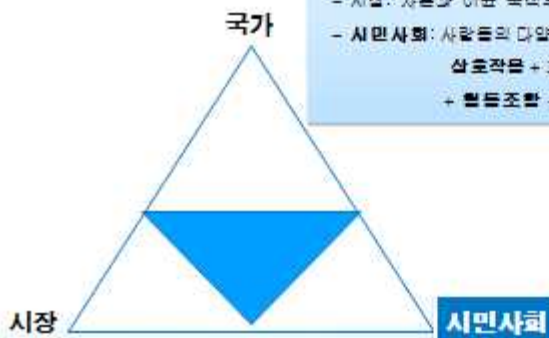


출처: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 자료

## 2. 사회적경제의 이념적 지평(1)

국가, 시장, 사회적 경제: 국가와 시장에 대한 새로운 명제

- 과거: 시장기능강화(우파) vs 사회민주주의 또는 케인즈주의(좌파)
- 국가와 시장의 이분적 대립에서 사회발전 패러다임으로서 시민사회 중요
- 새로운 대안적 사회모형을 찾기 위한 노력
  - 국가: 공공영역, 감시관여를 통한 부의 재분배 기능
  - 시장: 자본과 이윤 축적의 생산양식
  - 시민사회: 사람들의 다양한 욕구를 위해 자발적으로 만든 사회적 상호작용 + 유희를 권리를 하는 자원 공동 + 비영리공동 + 협동조합 + 사회적기업 등이 결합한 구조



## 2. 사회적경제의 이념적 지평(2)

사회적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호혜, 연대, 협동을 통한 사회적 재생산

### 한국의 사회적경제 특징

#### 시민사회부분 성장

정부 주도의 타율적 경제구조  
보조금 지원: 자립기반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쟁시장으로 내몰림

#### 사적 경쟁시장과 혼재

호혜	이해관계자들간의 사회적 관계에서 서로 의미있는 협력 제공하는 관계	자발적인 시민단체 지역복지운동 조직 중심 으로 지속 확대 중
연대	시장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	
협동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함께 일하는 것	

Reference  
· 김진영, 2014, 2012

한양대학교

## 2. 사회적경제의 이념적 지평(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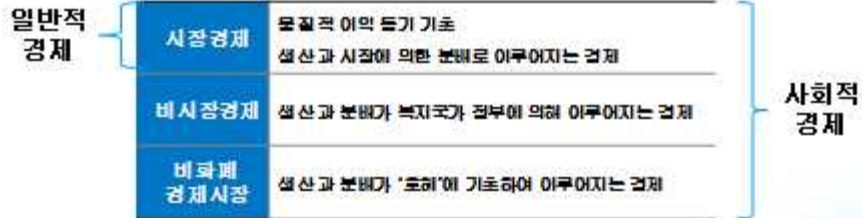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사회적 경제



한양대학교

### 3. 사회적경제의 이론적 접근(1)

다원 경제 (plural economy) 영역으로서의 사회적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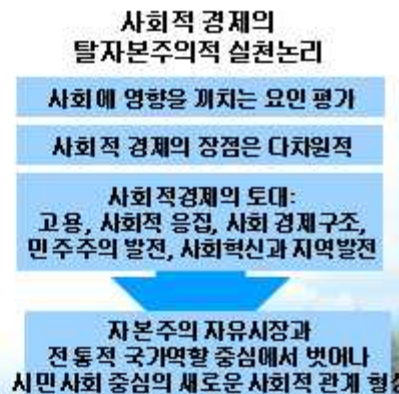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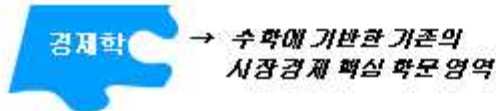


생산력 향상이 일차적인 목적이 아니라,  
'사회관계의 변화'에 관심과 초점을 둠

※ 사회적경제의 예: 저소득층의 사회적경제 지원개념, 시민사회기업의 사회적경제 확대, 사회적경제를  
불가능 속으로

### 3. 사회적경제의 이론적 접근(2)

응용학문 (applied economy)으로서의 사회적경제





### 3. 사회적경제의 이론적 접근(3)

경차로서 사회적경제 : 사회적 역량강화와 사회권력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 관점에서 경제를 이해한다

- ✓ **Human being**: 인간의 관점에서 경제를 본다
- ✓ **Social exclusion**: 사회적배제자에게 노동자, 시민으로 인정하게 한다
- ✓ **Social empowerment**: 시민사회와 국가와 시장보다 더 큰 힘을 갖는다

**사회권력** 은 시민조직과 정치경제적 결사체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 ✓ **시민조직**: 노동조합, 종교단체, 시민단체
- ✓ **정치경제적 결사체**: 협동조합 등
- ✓ **네트워크**: 사회적 자본의 축적



### 4. 사회적경제의 정책적 함의(1)

사회적 경제 정책의 원리: 연대와 평등



#### 연대와 평등

- ✓ 사회정책의 중요한 가치이며, 사회적경제의 본리
- ✓ 인간에 대한 존엄: 사람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
- ✓ **시민권(citizenship)** 보장이 선행

<b>연대</b>	공공성 구현과 거래의 실패 대비 사회적 책임의 공유
<b>평등</b>	사회적 경제는 사회구성원의 사회적 경제 활동 실행 권력 - 사회적경제도, 노동법, 장애인복지법(김영호, 2017) 참조

정치적공동체로서  
약자의 입장에서  
사회를 비판적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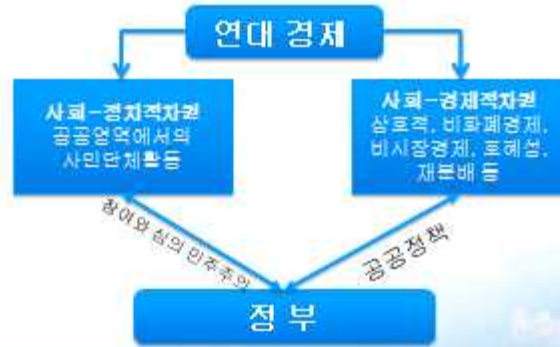
## 4. 사회적경제의 정책적 함의(2)

연대 경제의 두 자원: 사회-정치적, 사회-경제적



Kari Polanyi,  
1885년 - 1964년

- ▶ **칼 폴라니**: 사회가 시장을 제어하고 배태한다
- ▶ **연대경제**: 시장원리 + 국가에 의한 재분배 +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노력
- ▶ 사회적경제의 정체성으로서 연대경제가 주목



## 5. 한국에서의 사회적경제 흐름(1)

참고: 국가별 사회적기업 태동 방식 비교

✓: 한국 대비 유사 성격	유럽	영국	미국	일본/이탈리아	대한민국
주요 태동 주도 주체는 누구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별 노동조합 조직을 정부가 전략적 육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존 지역별 자원 조직을 정부가 전략적 육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영리 기업간 사회서비스 내 경쟁구도로 민간에서 자생적 성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별 생활협동조합 조직 그 자체로 민간 주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li> </ul>
주요 태동 이유는 무엇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동 시장 불균형 해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 서비스의 민영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존 민간 영역 내 사회 서비스 발달 가능성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 내 자립 경제 체제 구축 및 지역민 복지 향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동 시장 불균형 해소</li> <li>사회 서비스</li> </ul>
주요 활동은 무엇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자리 창출</li> <li>기타 사회 문제 해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타 사회 문제 해결</li> <li>지역 개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 개발</li> <li>일자리 창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 개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자리 창출</li> <li>기타 사회 문제 해결</li> </ul>
지역 기반 고도화 정도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양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양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매우 적극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양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흡</li> </ul>
상공 정책을 위한 핵심 역할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서비스 시장의 규모 + 정부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서비스 시장의 규모 + 정부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리 기업의 경영 노하우 적극수용 + 정부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존 지역 별 생활협동조합 조직의 활성화 + 정부지원</li> </ul>	?

##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 고조

고실업/저성장/양극화 등의 정치, 경제, 사회적 위기의식의 점점  
에서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기대 확대

→ IMF이후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시장경제의 성장 속에 경제성  
장은 이룩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사회양극화와 계층간 빈부의  
격차는 더욱 심화됨

→ 최근의 세계적 경제위기는 사회적 위기로 다가왔으며 특히  
취약계층의 위기는 더욱 심화되었음

→ 늘어난 복지수요에 속에서 정부재원을 통한 사회서비스 확  
충은 정부의 재정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음

→ 이러한 시대적 요청과 정부의 고민의 점점 속에서 우리사회  
의 대안적 모델로서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을 축으로 하는 사  
회적경제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증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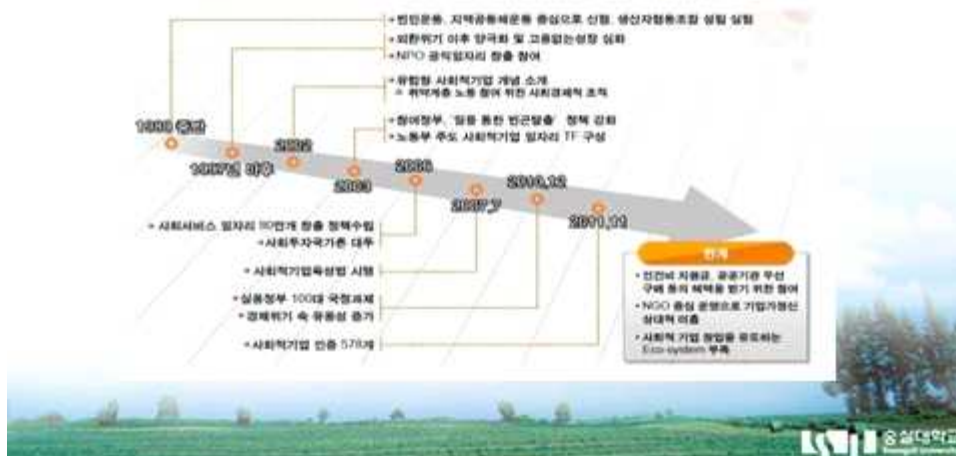
### 5. 한국에서의 사회적경제 흐름(2)

참고: 사회적기업의 역사적 흐름

2011 시민사회영역의 '자율적'이며 지속가능한 생존 중심이 아니라 정부 지원에 의존한 '확성'에 초점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도 육성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짐

: 정부의 각종 규제의 강제적인 지원, 중치금융금지 조항, 일자리협동조합형의 수단 가능성 등



## 한국 사회적경제 발전과정

- 한국의 사회적경제는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생산공동체 활동의 전통, 자활사업, 사회적일자리 사업 등의 사회복지영역 활동에서 본격적으로 출발함.

- 2007년 '사회적 기업 육성 법' 제정
- 2010년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작
- 협동조합기본법의 2011년 제정 및 2012년 말 발표 등 제도적 환경은 차차 조성됨.

-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위해서는 시민사회 전체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 윤리적 소비, 공동체를 살리는 소비, 가치투자, 자원봉사와 재능 기부, 기업과 공공기관외 사회적임구매 등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함.

### 5. 한국에서의 사회적경제 흐름(3)

사회적경제의 정책적 함의

#### [1. 시민민주주의 리더경제]



#### [2. 네트워크 경제]



#### [3. 지역사회기반 순환경제]



- ✓ 시민이 중심이 되는 경제공동체
- ✓ SNS처럼 사람과 네트워크 중요
- ✓ 지역을 사업의 플랫폼으로 시민이 주체
- ✓ 시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경제체계
- ✓ '지역자원 플랫폼과 자원배분플랫폼' 때문
- ✓ 지역 내에서의 고용과 취업기회 창출
- ✓ '공정한 분배'와 '기회의 균등' 지향
- ✓ 내로써를 위한 프로젝트가 발동한 것임
- ✓ 수익은 지역으로 환원되어 재투자
- 중요 사안에 따라 성과 공유

# 지역밀착형 사회적 기업 필요

정책 아젠다로서의 사회적 기업
➔
실질적 대안으로서의 사회적기업: 지역밀착형



## 6. 지역화: 지역기반형 경제와 내생적 발전이론

지역화와 지역경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위한 지역형 기업은 키우자

**세계화**

- 빈곤, 기아 문제보다는 시장금식 의증
- 탈지역화: 지역, 국가의 주권 통제권 박탈



**지역화, 지역화 정책**

- 서트 울트를 앞서는 '신뢰의 관계'
- 세계화로 인한 지역 주권 회복하는 것
- 지역주권은 민주주의 보장이어야 함
-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이며 이웃 위한
- 지역화 정책: 지역기반형 사업 구조
- 덴마크, 이탈리아: 협동조합기업, 소규모 기업이 편소사업이나 그를 활성화하는 네트워크 구조



## 6. 지역화: 지역기반형 경제와 내생적 발전이론

### 지역정책 발전을 위한 제언

- 지역 정책: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의 복지 향상과 사회적 기회 보장의 정책 추진
- 지역 내총생산(GDP) 확대, 1인당 실질소득 향상, 지역내 고용률 제고, 직업선택의 폭과 기회 확대, 소득분배율의 감소를 통한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하기 위한 정책 수립 필요
- 지역 내 고용확대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규제완화, 지역 내 자원 활용(인적 자원 포함)

### 내생적 발전론

- 1980년대 후반 Paul Romer 등이 주장
- 외생변수(기술진보 등)가 아니라 내생변수(자본축적의 차이, 학습효과차이, 연구개발차이, 교육수준차이, 정부정책 차이 등)로 지역 성장을 설명
- 경제성장론 외생변수가 아닌 내생변수의 차이의 영향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는 입장



Paul Romer



## 6. 지역화: 지역기반형 경제와 내생적 발전이론

### 국내의 내생적발전론 실현 사례

- 지자체 등 최초로 충청남도에서 내생적발전론에 기초한 사회적경제 정책 추진
- 충남발전연구원 내에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립(2011년 2월)하여, 충남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농업공동체회사 등에 지원



## 6. 지역화: 시민참여와 지역발전(지역통화 사례)1

### 지역통화(LETS) 사례: 한발레츠

※ LETS: Local Exchange(Employment) & Trading System / 지역고용(고용) 거래체계

※ 1983년 캐나다의 로버트 윌리엄슨 섬마을에서 마이클린슨이 설계

※ 국내에서는 1996년 소개된 후 1999년 한발레츠 시작

※ 플랫폼에 정기적으로 상품과 서비스 목록을 발행하고, 경제권 지역통화(가상통화)로 거래

#### [ 한발레츠 거래방법 ]

물건의 거래 어떻게 할까요?



#### [ 한발레츠 홈페이지 ]



## 6. 지역화: 시민참여와 지역발전(지역통화 사례)2

### 지역통화(LETS) 사례: 한발레츠

※ LETS는 지역을 기반으로한 교환거래 체계. 지역 내에서 통용되는 지역통화를 통해 노동과 물품 거래

※ 이들을 '날리기' 위한 결제시스템이 아니라, 남은 노동력이나 재능을 주고 교환하는 "신뢰"에 기반한 결제시스템

※ 한발레츠에서는 지역통화(유통)를 통해 지역공동체 학습을 및 경제 협력 실현

#### 효과1: 일자리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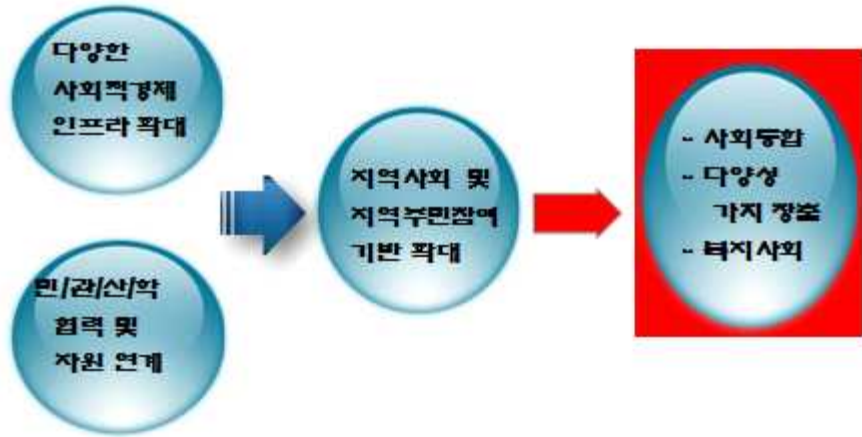
남들에게 무언가를 받기만 하여 마이너스 계정 이면 경우, 유품을 팔기 위해 다양한 상품을 판매, 음식, 천연비누만들기 등

#### 효과2: 공동체 복원

- 유품을 거래하는 일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
- 서로 모르는 사이를 친근한 이웃으로 만들어주는 것



# 지역밀착형 사회적경제 발전방향



## 7. 지역밀착형 사회적경제의 발전과제: 외적 조건(정치개혁과 시장개혁)1

### 위기의 대한민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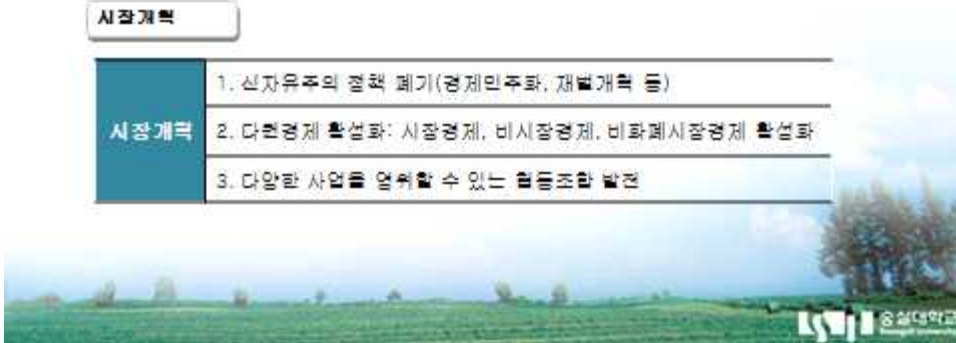
7. 지역밀착형 사회적경제의 발전과제: 외적조건(정치개혁과 시장개혁)

정치개혁

- |      |                                       |
|------|---------------------------------------|
| 정치개혁 | 1. 대의민주주의 발전(선거, 시민들의 의사가 정치영역에 잘 반영) |
|      | 2. 독일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
|      | 3. 기초의원들의 정당추천제 폐지                    |

시장개혁

- |      |                                       |
|------|---------------------------------------|
| 시장개혁 | 1. 신자유주의 정책 폐기(경제민주화, 재벌개혁 등)         |
|      | 2. 다원경제 활성화: 시장경제, 비시장경제, 비화폐시장경제 활성화 |
|      | 3. 다양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조항 발전           |



## 지속가능 사회를 위한 사회적경제

- 사회적경제는 자본보다 사람을 우위에 두는 경제 개념으로서, 자선적 복지외 시혜가 아닌 자주적, 자립적 경제행위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함.
- 이윤 창출이 최고의 목표인 자본주의 경제외 대안적 개념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우선으로 함. 공동체외 보편적 이익 실현, 민주적 의사 결정, 노동 중심의 수익배분, 사회 및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등 가치를 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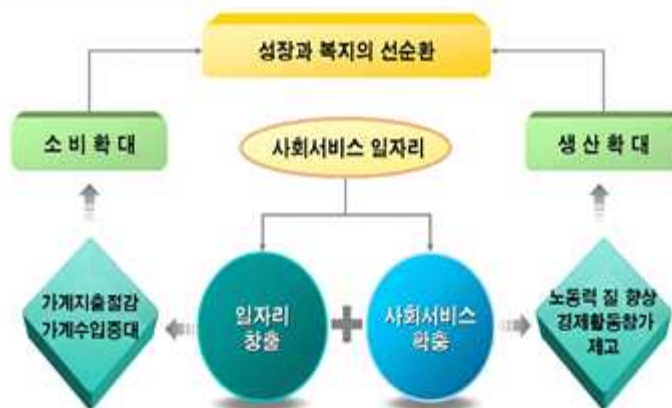
경제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협동과 연대, 신뢰가 필수적

## 보건복지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 1) 돌봄서비스 제공기관(바우처), 자활센터, 어린이집 등 기존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
- 2) 2017년까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1500개 육성하여 일자리 3만여명 창출
- 3) 착한 소비문화 및 윤리 기업경영 확산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 4) 부처간 협업을 통한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 5) 자활연수원(가칭)을 통한 사회적경제 리더 양성
- 6) 분립 → 네트워킹/ 공동체(협동조합)

## 사회적경제와 사회서비스의 상생구조

복지수준 제고와 일자리 창출 동시 달성



## 지역밀착형 사회적경제 육성의 주체와 역할

- 각 사회주체들의 욕구와 역량의 효율적 결합을 통한 대규모 사회적일자리 창출 모델 발굴 및 확산  
→ 지역에서 필요한 사회서비스 확충과 함께 일자리도 창출

	사회복지기관	기업	지자체
역할기대	지역사회에 대한 서비스 확대 제공	사회공헌 기업이미지 제고	일자리 기회확대 주민복지 확충
역량+강점	현장감각 도덕성	경영능력, 마인드 재원 지원	행정적 지원 지자체 시설 지원

- 사회복지기관, 기업, 지자체, 국민들의 관심 제고  
→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 사회적 기업의 성공을 위한 과제

1. 사회적 기업의 가치와 능력에 대한 시민사회의 이해
2. 사회적 기업의 부가가치와 영향에 대한 증거확보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환경적, 재무적 공헌에 대한 성과측정)
3. 적절한 자문와 지원
4.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조달과 활용
5. 사회적 기업의 특징과 필요에 대한 지자체의 적절한 지원(제도)
6. 다양한 기층에 대한 사회적 기업 자체의 도전



**감사합니다**

<발표 2>

# 지역 내 사회적경제 생태계 현황 및 활성화 방안 (마포구 사례를 중심으로)

홍진주 | 마포사회적경제생태계조성지원사업단 센터장

# 지역 내 사회적경제 생태계 현황 및 활성화 방안<sup>1)</sup>

(마포구 사례를 중심으로)

홍진주 (마포사회적경제생태계조성지원사업단)

## 1. 서론

사회적경제는 전세계적인 시장경제의 확장에서 비롯된 지역경제위기와 양극화, 실업, 고령화, 환경파괴 등의 심각한 사회문제 속에서 시장과 공공이 해결하지 못하는 지역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을 비롯한 사회문제해결을 혁신적으로 실현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유럽, 에서는 1970년대 부터 제3의 경제영역으로 시민사회의 역량에 기반하여 역사속의 시행착오를 통해 대안적 경제체제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국내에서는 협동사회를 지향해온 시민사회의 노력과 중앙정부와 일부 광역정부의 강력한 정책에 의해 사회적경제가 급속도로 확장되었으며, 사회적경제는 이제 국가적인 관심 속에서 성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여야모두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되고 상당수의 기초지자체들까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나 전달체계, 지원사업 등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강력한 중앙정부의 제도화의 추동강도에 비해 지역 내에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와 실천적 확산, 공감대형성 등은 상대적으로 이에 미치지 못하는 듯하다.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양적으로 증가하였지만 단기간 육성에 의한 경우가 많아 개별주체역량은 물론, 사회적 가치와 비즈니스모델에서 있어서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 현실이다. 이와 연결되어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시민의 이해나 인식 또한 부족하거나 편향된 경우가 많다. 결국 강력한 제도화에 의한 사회적경제의 확산이 실제 현장에서 체감가능한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책의 현장인 지역사회차원에서의 고민과 접근이 필요하다. 즉, 사회적경제가 태동하고 활동하고 있는 지역사회 내에서 문제해결과 경제활성화의 대안적 주체로 성장.발전하기 위한 지역맞춤 정책과 전략, 사업, 성공모델개발 등이 필요하다. 서울시가 2012년부터 추진 중인 사회적경제생태계조성사업(지역특화사업)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지역내 주체의 형성, 생태계요소의 구축, 지역사회내 사회변화창출력확보 등을 통해 지역 내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사회적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화 사업의 대표사례라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사회적경제의 급격한 확장 속에서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하에 국내에서 가장 많은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활동하고 있는 마포구의 지역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지역에서 사회적경제는 어떠한 상황 속에 발전해 왔는지, 지역사회적경제 생태계의 현황과 한계, 발전가능성 등은 무엇인지를

1) 본 원고의 주요내용은 [마포구 사회적경제 실태분석보고서(2014, 마포사회적경제생태계조성지원사업단)]의 일부를 수정, 편집하여 작성하였다.

분석함으로써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 2. 마포 사회적경제 현황 및 특성

### 1) 마포의 지역현황

마포구는 서울 서북부에 위치한 인구 39만 명의 도시로서, 주거, 산업, 녹지가 고르게 분포한 대표적인 도시지역이다. 마포구는 주요거점(홍대문화예술지구, 합정·공덕사무지구, 상암DMC지구)을 중심으로 대규모 아파트와 상업지구가 형성되어 있다. 마포구는 이를 바탕으로 건설사업 등을 통한 지역개발, 외부자원의 유치 등 지역개발과 발전을 추진 중이며, 지하철 2호선, 5호선, 6호선을 비롯하여 공항철도, 경의선 등 5개 노선이 통과하는 교통의 요지로 서울전역 및 경기권역으로의 진·출입이 용이한 지역이다. 최근 공항철도 개통과 함께 외국인 관광객 관련 산업의 활성화 및 투자가능성이 높은 지역이기도 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산업측면에서 공덕-합정 중심의 사무지구에는 대기업, 금융, 사무영역의 기업들이 홍대 문화·상업지구에는 문화예술산업, 출판산업, 외식업, 서비스업 등이 밀집되어 있다. 상암DMC중심 첨단산업지구는 영상, IT분야 기업들이 위치해 있는데, 주요 언론사들의 본격적인 이전으로 산업 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 및 일자리창출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이와 함께 염리, 연남, 망원, 성산동 등의 구 도시에는 지역의 영세사업체들이 자리잡고 있으며, 대규모 재래시장과 대규모 유통업체가 함께 위치하고 있는데, 월드컵경기장과 월드컵공원(난지, 노을, 하늘공원)을 중심으로 한강변 대규모녹지 등 생활편의를 위한 인프라가 풍부한 지역이다. 주거지역으로서는 공덕, 아현, 합정, 상암지구 등의 재개발을 통해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위치해 있고, 염리, 연남, 망원, 성산 등 일반주택 밀집지역이 공존하고 있다. 이렇듯 마포는 산업의 규모, 영역, 형태의 다양성이 공존하는 가운데 산업지구와 생활지구가 공존·발전하고 있는 지역특성을 지니고 있다.

마포구 재정자립도는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 8위인 32.8%(서울시 평균 33.6%)이다. 상대적으로는 중간이상이지만, 강남권 및 사업체 밀집지역들의 재정자립도가 50%이상인 것을 생각해 볼 때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복지·생활 측면에서 복지, 문화, 교육 관련 인프라는 지속적인 확충과정을 통해 상당한 기반이 갖추어진 편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청소년문화시설, 국내 유일하게 설치된 마포창업복지관, 우리마포복지관 등의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앙도서관 및 교육복지센터, 여성센터 등의 설립을 추진하는 등 복지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도가 지속적으로 진행 중인 지역이기도 하다.

시민사회 측면에서 보면, 2013년 마포구 마을넷 조사에서 파악된 바와 같이 지역 내 활동단체의 수가 약 200여개로, 성산 1동에 위치한 성미산마을공동체와 서교동 가톨릭청년회관, 여성재단 등을 중심으로 전국단위의 대표적인 시민·사회단체들이 위치해 있다. 이를 기반으로 지역 내 민민민 관협력과 교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이를 위한 다양한 네트워크와 협력이 시도되고 있는 지역이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산업, 복지·시민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지역개발과 중산층 인구유입 확대, 집 값 상승과 같은 제반 환경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임대아파트 단지 및 구도시의 생활환경 및 복지

체감도는 낮은 편이며, 장기적으로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 실제로, 대형 유통업체 입점과 주변전통시장, 골목상권 과의 갈등, 염리·아현동 재개발관련 주민갈등이 심화되었으며,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거주자들의 생활고 문제 및 우울증으로 잇단 자살문제 등이 지역문제로 대두되었다.

또한 마포의 향후 지역개발이 더욱 가속화될 경우, 그 이면에서 발생될 사회문제와 갈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 내 어려움에 대한 대안모색의 필요성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으며, 복지계는 물론 마포구내 사회적경제 영역 또한 지역사회와의 밀접한 연계성을 강화를 바탕으로 이 문제를 연대하여 해결해야한다는 내부적인 반성의 움직임이 존재해왔다. 앞으로 보다 구체화된 협력과 해결모색을 통한 갈등 문제 해결의 노력이 필요하다.

요컨대, 마포는 과도발전도 낙후도 아닌 일반적인 산업구조를 기반으로 주거, 상업, 산업, 녹지 등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일반 산업부터 사회적경제 영역에까지 기초인프라 및 잠재적 성장가능성을 보유한 보편적인 도시지역의 사례로서, 지역사회의 균형과 공동체성 강화를 통한 지역 내 발전이 기대되는 지역사회이다.

## 2) 마포 사회적경제의 발전과정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빈곤과 실업극복을 위한 일자리사업들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마포지역은 자활사업과 빈곤문제해결을 위한 복지·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대안적 사업의 대표적인 실천의 장으로 발전하게 된다.

### 가. 태동기(1997년~2006년)

이 시기는 외환위기와 대량실업과 빈곤의 문제 극복을 위해 전국적으로 민간 복지단체들의 활동이 다양하게 일어나는 시기였다. 마포의 사회적경제는 저소득층, 실업자들에 대한 노동통합형 사업단 형태와 지역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시민사회활동중심 공동체 형태의 두 가지 축을 기반으로 태동하기 시작하였다.

노동통합형 사업단형태의 경우, 난지도(상암동)지역의 저소득층 밀집지역과 성산영구임대아파트로 이주한 저소득층 등을 중심으로 그들의 생계 및 자립 지원 욕구에 직면한 뒤, 199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전국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되어 복지관 중심의 단기적 자활프로그램을 넘어서서, 지역빈곤층의 자립을 위한 일자리사업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게 되었다. 이후 마포지역자활센터가 전국자활사업의 초기 시범사업으로 설립 운영되었으며, 출장부페, 도시락, 청소, 돌봄, 간병, 떡제조, 집수리 등의 사업단을 통해 저소득주민들이 일 경험 및 역량을 축적한 후, 자활공동체로 본격적인 사회적경제 조직이 되어 지역 내로 배출되는 시스템을 운영해나가기 시작했다.

다음으로, 또 다른 축은 서교동 및 동교동을 중심으로 하는 시민사회영역과, 성산동성미산마을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영역에서의 활동이다. 1994년 공동체 육아를 중심으로 시작된 성미산마을은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이라는 개념이 국내에 적용되기 훨씬 이전부터 지역 중심의 사회적경제 모델을 적용해 실천해 온 사례로 현재까지 국내 대표적인 모델로 알려지고 있다. 성미산 마을에서는 지



역사회를 기반으로, 공동육아, 성미산학교, 성미산마을극장, 작은나무 카페, 카센터, 되살림가게, 마을식당 등 다양한 형태의 마을공동체 중심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되어왔다.

또한 마포는 IMF 금융위기 당시에 전 국가적인 실업 대란과 경제 불황을 극복하고자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가 출범한 지역이기도 하다. 2003년 6월 장기화·구조화되는 실업 상황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익재단법인 '(재)실업극복국민재단 함께 일하는 사회'로, 이후 2008년 9월 '(재) 함께 일하는 재단'으로 발전을 거치며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실업극복운동을 위한 광범위한 활동을 수행해왔다. 이 단체는 마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향후 혁신 사회적 기업 육성·확장의 기반이 되었다.

#### 나. 기반조성기(2007년~2009년)

2007년 사회적 기업 인증제를 시행한 직후, 마포에서는 사회적 기업 인증 1호인 (재)다솨이 재단, 여성들의 일자리와 경제적 독립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주)우리가 만드는 미래 그리고 신나는 문화학교 교사협회가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게 된다. 명문화된 제도 시행에 앞서, 마포구는 이미 현장에서 크고 작은 사회적경제 실험이 있었는데, 이러한 과정 속에 있었던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노동부인증, 예비 등의 형태로 지정되면서 마포구 내 사회적 기업의 영역이 본격적으로 확대하게 되었다.

이후 2008년에는 (주)미디어교육연구소, 티팟(주), (재)민족의학연구원(문턱 없는 밥집), 행복창조행복지킴이사업단, (주)에듀머니 등의 사회적 기업이 인증을 받았고, 그 이후로도 매년 지속적으로 사회적 기업 주체들이 세워지고 있다. 기존에 이미 활발하게 활동하던 단체들이 사회적 기업으로 적극적으로 전환되는 부분과 더불어, 강북청년창업센터, 함께 일하는 재단, 세스넷 등과 같은 전문지원조직을 중심으로 사회적 기업들을 육성 및 배출하는 교육이 활성화되었으며, 함께일하는 재단의 경우 소셜벤처 인큐베이팅 센터(마포)를 거점으로 10개 팀의 인큐베이팅 사업 등이 진행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이 지역에 기반한 것이 아닌, 전국광역차원의 관점을 가지고 육성되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 이후에 타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도 적지 않은 현실이기도하다. 같은 맥락에서 지역주민참여 및 지역공동체 연계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서, 외형적인 마포 사회적 기업의 양적규모에 비해, 실제 지역사회 내부에서의 사회적 기업 확산이나 파급력에는 차이가 발생하는 지점이 생겨나기도 하였다.

한편, 노동통합형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지역성에 기반을 두고 활성화 된 조직들로는 자활공동체(자활기업) 맛을 만드는 사람들, 오피나눔, 아름다운 세탁나라 등과 성미산마을공동체 중심의 작은나무 카페, 동네부엌, 성미산 밥상, 마포올림두레생협 등의 마을기업들, 그리고 각 복지기관 및 시민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및 사업단 등이 있으며, 이들을 중심으로 마포 지역 내의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복지를 위한 사회적경제 영역의 활동은 본격화 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 자치구 단위에서의 2009년 자치구 사회적 기업지원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물리적 공간 및 지원기관들의 개관 등을 통해 마포구 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초 인프라의 조성이 이루어졌다. 특히 마포창업복지관을 통해 취약계층, 장애인, 청년, 중소기업 등의 창업 인프라를

지원하고 주민접점을 마련하고자 하는 시도는 최근 사회적 기업 허브센터, 창업보육공간의 지원보다 앞선 시도였다. 다만, 초기 동력이 성장기로 연결, 확장되지 못하여 당시 자치구의 자생적 노력이 평가절하 된 측면이 있다.

다. 성장기(2010년~현재)

마포지역 사회적경제의 확산은 자치단체의 지원보다는 민간의 기획과 역량에 의존하여 확산되어온 부분이 크다. 일자리 및 복지 친화적인 구정 운영방침에 의거하여 민-관이 비교적 우호적이고 지지적인 관계형성은 가능하였으나, 관련 정책지원계획수립, 물리적 지원, 우선구매 등의 실질적인 요건들이 본격적으로 수행되지는 못하였다.

한편, 함께 일하는 재단의 창업팀 육성사업의 영향으로 마포에 적을 둔 혁신형 사회적 기업(공부 의신, 오방놀이터, 딜라이트 등)들이 사회적 조명을 받으며 지역 내에서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보다 확산되었다. 그 이후로도 마포에서는 한 해도 끊이지 않고 매년 (예비)사회적 기업이 배출되어 왔으며, 각종 공모와 수상 등에 우수한 성과를 거두는 기업들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지속적인 사회적경제 주체가 자생적으로 성장·발전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좋은 예라고 볼 수 있다.

마을기업분야에서는 2010년 상반기 신수동 마을주식회사를 통해 텃밭 내 생산품들과 두부 등을 중심으로 지역 내 생산소비모델이 시도되었고, 2011년 솔트카페, 연남올레, 다들카페 등 주민자치위원회 중심의 사업체의 활동도 활발하게 시작되었다. 물론 수행과정에서 중단되거나, 변경된 사업도 있지만, 위에 언급된 다양한 사회적경제주체들은 지역사회 공동체성에 기반한 사회적경제활동의 좋은 사례로 볼 수 있다.

또한 공동체분야에서도 광역 정부의 마을공동체사업 확산 및 사회적경제 분야 지원강화 속에서 성미산 마을 중심의 마을기업이 여전히 부각되고 있다. 성미산 마을 사업체들이 마을기업, 협동조합으로 구조를 전환 및 확장해 오고 있으며 지역내외적인 커뮤니티비즈니스의 대표사례로 벤치마킹 등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그 외 지역내에서 복지기관기반의 장애인, 저소득층 중심의 베이커리, 커뮤니티카페, 청소사업단과 지역 내 일자리창출기관을 기반으로 경력단절여성들이 지역내 사업체를 설립, 확대하고 있다. 디자인갯춤, 폭력피해여성들의 자립을 위한 미용실, 1인가구를 위한 복합 문화공간 카페인 그리다협동조합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한편 자활기업은 오히려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들의 성장과 확대의 물결 가운데에서 상대적으로 한정된 지원의 한계성, 참여자들의 운영역량부족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2012년 8개였던 자활기업은 2014년 현재 4개로 축소되었다. 향후 역사적으로 협동과 자립에 의한 자활기업들이 지역 내에서 지속가능하게 육성, 성장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위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다.

마포구는 2010년과 2011년에 2개의 마포형 사회적 기업을 단기 육성한 후 현재 직접육성사업은 중단한 상태이나, 최근들어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통한 지원 및 육성 강화를 위한 사업추진 및 전달체계가 구축되고 있다. 경의선 폐선 부지공간을 활용한 벼룩시장 형태로 상설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활동공간(늘장)을 확보한다든지, 지역 내 사회적경제 샵인샵을 늘려가기 위한 사업 등을 시

도하고 있다. 또한, 구가 설립하여 민간이 위탁운영 중인 마포구고용복지지원센터를 통해 사회적경제 분야 강좌 및 교육, 공동의 홍보공간 마련 등의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 내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생태계조성사업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도 공공기관, 공기업 등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사회적 기업이 공공시장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노력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담당자의 잦은 교체 및 전문성 부족 등으로 중장기적인 사회적경제 지원계획 수립 등은 여전히 부재한 상황이다.

구 차원의 노력과 함께, 민간차원에서 비공식적으로 운영되던 개별 네트워크들이 보다 본격화되었고,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추진준비 과정을 통해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및 지역공동체, 사업단 등 지역전체의 사회적경제 조직을 아우르는 네트워크가 2013년 12월 20일에 본격 출범하였다. 더불어, 마포구는 서울시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 특화사업의 3기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어 마포사회적경제생태계조성지원사업단(마포구고용복지지원센터와 마포사회적경제네트워크의 컨소시엄으로 운영)이 지역 내 사회적경제 주체역량강화, 네트워크 및 거버넌스 구축, 공유경제 및 공동마케팅활성화, 지역 내 모델형 공동사업 추진 등을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중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마포구 내 사회적경제 영역은 사회변화와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지 및 고용조직 중심의 노동통합 형태, 주민·공동체중심형태, 시민사회단체 중심의 변화, 혁신형태 등 다양한 구조화 형태로 구성되며 지역 내에서 태동, 성장,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광역자치단체의 친사회적경제 정책 속에서 기존에 시도된 민간의 다양한 관련 활동들이 결합하며 양적인 부분 뿐 아니라, 질적인 부분에서의 확산이 지금까지보다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다. 실제 협동조합 설립 및 마을기업지원 등에서 마포구는 타 구에 비해 활성화 속도가 빠른 편이다(협동조합 조합원수 2664명으로 서울시 최고, 조합수 서울시 2위, 출자금 2위<sup>2)</sup> 등). 이런 발전과정 속에 있는 마포구 지역사회는 지역 내 사회적경제를 둘러싼 생태계의 특성이 사회적경제 내부의 발전과 확산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현상과 영향의 면밀한 검토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도 및 사업추진과 함께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다.

### 3) 마포지역의 사회적경제 기업 현황

마포는 사회적 기업 초기부터, 규모 면에서 전국적으로 많은 수의 주체들이 위치한 지역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수많은 단위들이 사회적 기업 운영을 준비하는 자생적 사회적경제 밀집 지역으로서 사회적경제 단위들의 활동이 활발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정책에 의한 인증여부를 차치하고라도, 시민사회·복지진영에서 사회적 기업 형태로 운영되는 사업단, 공동체형태의 사회적경제 조직 및 잠재적 인증대상 규모 등을 살펴볼 때, 마포는 다른 어떤 지역에 비해서도 사회적경제 주체 규모에 있어서 월등한 지역으로 볼 수 있다.

2) 서울시 사회적경제 현황 및 지역화과제 중 인용(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14)

이는 마포구의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활성화 사례가 서울, 나아가 전국적인 도시중심 사회적경제 확산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음을 내포하는 동시에,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구축 및 협력, 전략을 적용하는데 있어 정책적 지원이 중요한 지역임을 의미하고 있다.

◎ 마포 사회적경제 기업의 규모

마포구는 2014년 5월 1일 기준으로 39개의 사회적 기업이 존재하고 있다<sup>3)</sup>. 안전행정부 마을기업 8개소, 서울형 마을기업 4개소, 자활기업 4개소, 지역자활센터 내 자활사업단 7개소, 기타 복지·시민단체, 공동체 중심 사업단 등 다수의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활동하고 있는 지역이다. 최근 설립이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는 협동조합 또한 78개소에 달하고 있으며, 지역 내 활동 중인 단체에서의 미 파악된 사회적경제활동을 포함할 경우 그 규모는 약 200여개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표 1〉 마포구 주요 사회적경제 현황

구 분	계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고용노동부 인증	고용노동부 예비	서울형	부처형			
기업 수	135	20	10	9	2	12	4	78

주: 8월 현재 협동조합 103개로 증가  
 자료: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 내부자료(2014.5기준).

대표적인 사회적경제 조직의 형태인 사회적 기업을 중심으로 현황을 분석해보면, 서울지역 사회적 기업은 지난 5년 동안 14배 이상 증가(11개→180여개)하는 과정에서 매년 인증 사회적 기업을 배출한 지자체는 마포구가 유일하며, 양적인 규모에 있어서 타 자치구에 비해 높은 성장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해 볼 수 있다. 최근 지역 내 임대료 상승, 기업 상황에 따라 사회적 기업들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타 지역에서 마포로 유입되는 현상, 서울시 예비 사회적 기업육성정책의 변화로 인한 예비 사회적 기업의 지원 축소, 예비 사회적 기업들의 고용노동부 인증단계에서의 인증포기, 운영형태 변경 등으로 인하여 분류 상의 수적증감은 존재하지만, 결과적으로 객관적으로 다수의 사회적 기업들이 마포에서 설립·운영되고 적극적으로 활동 중이다.

지역 내 최근 4개년간의 사회적 기업 주체현황을 살펴보면, 마포구 사회적경제 단위들의 규모는 사회적경제 육성이 활성화 제도가 가속화되는 최근 4년 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 지역이 정책적으로 사회적경제 주체수를 확대해 나가려는 움직임은 보이고 한편으로 예비사회적기업들이 지원금종료에 의해 폐업하는 등의 감소하는 등의 정책영향이 양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데 비하여 마포구는 양적인 변화의 규모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마포구의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공공에 의하여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육성된 것이 아니라 민간 중심의 자체육성 및 확대라는 측면을 내포하고 있음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러한 마포구의 자생적 사회적경제 주체형성의 특징은 순수 민간중심의 내발적 생태계의 형태를 보이며, 외부지원 및 정부의존성을 가지기보다

는 주체적 자발성과 주도성이 높다는 강점요인을 갖고 있어 구조적 긍정성을 평가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 마포 사회적경제 기업 구성 및 분포

마포구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성원들의 양적규모 못지않게 생태계 구성원들의 질적인 수준에서도 다양성과 높은 역량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실제 마포구의 사회적경제 수준을 드러내는 일례로, 전국적으로 마을공동체의 대표사례가 되는 ‘성미산 마을’이 있고, 혁신적 사회적 기업의 성공사례로 제시되는 사회적 기업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문화다양성과 창조적 아이디어가 밀집된 홍대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민사회와 문화예술단체들이 자체적인 클러스터를 이루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마포구 뿐 아니라 서울시, 전국단위에서 벤치마칭하게 되는 사회적기업의 좋은 롤모델로서, 다양한 외부사례발표나 멘토링 등의 활동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전체 생태계활성화를 위해 기여하고 있는 단위들이다. 이에 더하여, 전국단위 사회적기업지원조직인 ‘함께 일하는 재단’, ‘세스넷’ 등의 본사가 위치하고 있으며, ‘강북청년창업지원센터’ 등 서울시 차원의 지원조직 또한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한겨레 경제연구소’ 등 사회 경제 분야 대표적인 연구교육 주체들이 활발하게 활동 중이며, 사회복지영역의 대표적 사회적경제 주체들을 발굴·육성해 온 ‘마포지역자활센터’를 비롯하여, ‘태화 샘 솟는집’,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 ‘우리마포복지관’ 등의 사회복지 관련기관들 또한 우수한 인적, 물적 자원을 보유한 기관이자, 노동통합형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및 지원에 앞장서고 있는 기관들이다.

〈표 2〉 업종별 사회적경제 기업 분포(2014년 5월 기준)

	복지보건	문화교육	제조·유통	서비스 등 기타 <sup>1)</sup>	계
인증	5	10	1	4	20
예비	-	7	1	2	10
서울형	1	5	1	2	9
마을기업	1	-	3	8	12
자활기업	-	-	-	4	4
계	7	22	6	20	55

주: 카페, 청소, 도시락 등 기타분야 포함, 협동조합의 경우 제외  
 자료: 마포구청 자체자료 (연구자 재분석, 정리)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성단위들의 업종별 분포를 살펴보면, 상당수의 사회적 기업의 경우 복지·보건(7개), 문화교육 (22개)등의 사회서비스분야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고, 제조·유통(6개), 서비스 등 기타(20개)등으로, 특히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의 경우는 제조나 카페 및 음식·서비스업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특성은 제품, 제조업 중심 주체들이 많은 지역에 비하여, 공동체성, 지역변화 등 가치 중심의 협력, 사업구조 도출에 유리한 특성을 지닌다. 실제 서비스분야의 단위들은 지역주민 간 소통의 공간을 마련하거나, 문화 및 교육 활동을 동시에 추진하는 등 지역성에 기반하여 운영하려는 시도가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3) 동별 사회적경제 기업 분포(2014년 5월 기준)

계	상암동	연남동	성산동	구수동	동교동	서교동	합정동	마포동	대흥동	염리동	상수동	용강동	노고산동
인증20	1	2	4	-	2	5	2	-	3	-	1	-	-
예비10	-	1	2	-	-	4	-	1	-	1	-	-	1
서울형9	-	1	-	-	3	1	1	2	-	-	-	1	-
마을 기업12	-	1	6	1	-	2	-	-	-	2	-	-	-
계	1	5	12	1		12	3	3	3	3	1	1	1

자료: 마포구청 자체자료 (연구자 재분석, 정리/ 협동조합 제외)

사회적 기업들의 지역적 분포를 살펴보면, 인증기업들의 경우 동교동, 서교동 등 홍대인근에 밀집되어 있거나, 성산동 성미산 마을 인근에 밀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마포구 사회적경제 구성기업들의 특성 (문화예술기반, 성미산마을, 시민사회단체 영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마을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등의 분포가 전통적 사회적경제 밀집지였던 홍대인근이나 성미산 마을로부터 퍼져나가는 경향이 발견되나, 점차적으로 마포구 전지역, 특히 주민과 접촉점이 높은 타지역들에서도 적극적으로 육성되고, 활동이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 ◎ 마포 사회적경제 기업운영 현황<sup>4)</sup>

마포지역특화사업단이 2014.1-2에 61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마포 사회적경제 기업(사회적기업 26개소, 협동조합 29개소, 마을기업 5개소, 자활기업 1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주요한 운영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 사업체 평균 고용인원 8.49명, 취약계층 근로자는 평균 2.24명(최소 0, 최대 26명)이며, 전체 근로자대비 취약층비율은 23.9%로 나타났다. 취약계층고용이 없는 기업도 20개소(44.4%)로 나타났다. 마포구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실태는 전국 사회적기업 평균 유급근로자수 23.3명<sup>5)</sup>에 비하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노동통합형 사회적경제 조직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과 신규창업조직(협동조합) 등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 근로자 평균임금은 약 138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주평균근로시간은 36.35시간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화·교육분야의 근로자들 중 다수가 시간제, 파견형근로형태인 영향으로 추측된다.
- 소비자층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61.6%이며, 일반대상 중 특정 선호를 가진 층을 대상으로 하는(예: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 책을 필요로 하는 사람 등) 경우도 15.4%로 나타나 특정취약층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경우가 77%로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장애인 5.1%, 아동청소년층 11.5%, 영유아 1.3%, 노인 1.3%, 로 나타났다.
- 제공되는 재화. 서비스의 경우 22.7%가 공연·전시·행사 등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외의 의료, 재활용, 환경, 교육/상담, 식음료/서비스, 가사/간병서비스, 광고/홍보, 청소 등으로 나타나 비

4) 마포구 사회적경제 실태조사 연구보고서 (마포사회적경제생태계조성지원사업단, 2014) 중 부분 인용하여 정리하였다.

5) 고용노동부(2013), 사회적기업 활성화 추진계획

교적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적경제 기업의 사업분야가 협소하다는 전국적인 문제제기에 비해 마포는 상대적으로 다양한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취약계층 일자리제공 및 사회서비스를 위한 기능을 넘어선 혁신적이고 대안적 변화를 유도하는 활동에 초점을 둔 지역내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확대되는 현상의 영향으로 보인다. 향후 마포구내 사회적경제 기업들은 다양한 지역사회내 욕구와 문제 해결을 위한 분야에 보다 활동을 확장할 가능성 또한 높다고 볼 수 있다.

### 3. 마포 사회적경제 생태계 현황분석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 단위들이 성장할 수 있는 지역 내 유기적인 환경체계로 다양한 이해당사자간의 네트워크 및 인프라이다. 사회적경제 생태계는 자본인프라와 사회, 경제, 문화적 환경으로 구성되며, 자본인프라는 인적자본, 사회정치자본, 금융자본, 지식자본 등을 의미하며, 환경요인은 사회적경제 정책, 언론홍보와 문화적 인지도,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포괄한다. 또한 생태계는 지역사회와 연결되어 작동되어야한다. 사회적 경제는 개별주체로 존재하지만 이와 동시에, 지속가능한 성장, 발전을 위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연관된 네트워크 안에서 관계와 상호작용을 통해 지역내 사회적경제의 이해증진 및 참여와 공감대확산, 경쟁력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역량강화와 지역전략 수립 등 생태계 차원의 이해와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본 장에서는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요소를 중심으로 생태계 현상 및 영향에 대한 탐색을 통해 향후 마포구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 및 확장을 위해 필요한 주요이슈 및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고자 한다.

#### 1) 인적자본의 실태 및 영향

인적자본이란 사회적경제 활동의 핵심주체 및 네트워크를 의미한다(김성기 외, 2012).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거나 활동을 준비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기업은 물론, NGO, 자원봉사, 은퇴자조직, 기업조직 등의 활동가, 리더를 포함한다.

마포의 사회적경제 인적자본은 상대적으로 양적으로 다수이며 활동역량 및 경험들이 우수한 경우가 많다. 기존 시민사회, 복지단체, 마을 리더로서의 활동경험을 통해 역량을 축적하고 사회적경제 조직체를 운영하는 경우와 전문지원조직과 광역차원에서 사회적경제 인적자원으로 육성을 통해 성장한 개별 조직의 활동가들 또한 활발히 활동 중이다. 이들의 역량은 마포지역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경쟁력과 영향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우수한 인적자원의 우수한 역량과 활동경험들이 지역 내에서 개별적으로 산발적으로 발휘되고 있으며, 지역내 리더들이 광역, 외부로 빠져나가는 현상 등으로 인해 결집된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 지역네트워크활동과 지역공동사업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최근 이에 대한 문제의식하게 지역내 인적자원간의 협업과 역할, 영향력에 대한 논의로 이어져 지역네트워크운영위원회 및 의제별, 분과별 모임 등을 통해 논의되고 있어 향후 우수하고 풍부한 지역내 인적자본이 지역내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역 내에서 지역주민이나 신규조직에서 사회적경제 주체로 육성, 성장을 통해 리더가 되는 경우는 미흡하며, 초기 일부 주민자치위원장, 부녀회장 출신 리더가 마을기업을 운영하다가 중단하거나, 자활공동체의 경우에도 활동을 중단하게 되는 등 지역주민 중심의 자체적 인적자본발굴 및 육성측면에서의 강화노력이 필요하다. 마포가 시민사회, 복지단체 활동이 왕성한 지역이라는 특성은 향후 사회적 가치와 경쟁력있는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배출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인근지역 대학가와 연계하여 향후 청년리더십 양성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며, 성미산의 사례와 같이 마을중심의 사회적경제 기업 발굴, 육성의 확산을 통해 장년, 주부, 고령자 등 다양한 지역주민 리더십이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경제 단위 리더, 활동가 등의 인적자본이 유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역내 교육, 훈련 등 인력양성의 시스템이 갖추어져야하는데, 마포의 경우 지역에 집중하여 인력을 육성하는 시스템은 본격 가동되지 못하였다. 물론 광역차원 교육들의 주요 수행 장소가 마포구인 경우가 많아, 다양한 교육, 훈련 등에 접근성은 무척 높은 편이다. 하지만 전략적이고 집중적으로 지역내 인재를 양성하여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내용의 훈련과정을 개설되지 못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마을기업, 돌봄, 복지분야 사회적경제 리더양성, 문화분야 사회적경제 활동가양성, 여성사회적경제기업가양성 등의 신규육성과정이 지역 내에서 진행되어 인적자원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지역 내 종사자의 역량강화와 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워크샵, 협동조합간 협력과 조합원, 활동가 역량강화를 위한 공동사업 등이 제안되어 네트워크를 통해 추진 중이다. 향후 지역내 우수한 성장기 사회적경제 기업 리더들의 지역내 영향력발휘와 지역내 신생주체들의 발굴, 육성 등의 인적자본에 대한 지역차원의 접근과 지원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 2) 지식자본 및 지원인프라의 실태 및 영향

지식자본은 사회적경제 활동을 돕는 사회적기업 운영의 노하우와 성공사례 등 사회적경제 외부가 제공하는 지식차원의 인프라를 의미한다(김성기외, 2012). 사회적기업가 교육, 연구, 컨설팅, 지원, 평가 등의 사업을 하는 조직활동, 사회적기업 지원조직의 주요프로그램 등이 포함된다.

마포구는 전국단위 중간지원조직(함께일하는재단, 세스넷 등)의 대표기관들이 지역 내 존재하며 이들의 활동이 마포의 지원인프라로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쳐왔다. 이들의 그밖에 마포창업복지관 내 마포비즈니스센터, 1인창조기업, 시니어비즈플라자 등 창업육성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서울산업진흥원(SBA)중심으로 한 DMC첨단산업육성센터, 중소기업지원센터, 강북청년창업센터 등의 광역차원의 육성공간들이 밀집해 있어 기존 창업인큐베이팅서비스 등 지원인프라는 풍부하다. 문화예술 영역의 경우 서교예술실험센터 등을 중심으로 지원인프라가 보유되어있다. 이들 광역차원의 지원인프라들을 기반으로 사회적경제 분야 일부 조직들이 육성되거나 실험적 활동을 펼치기도 하였다.

하지만, 지역의 사회적경제 조직을 지원하는 지역자체인프라가 매우 부족하였다가 최근 보완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의 사회적경제지원을 위한 조직으로는 여성이만드는일과미래(사), 중부여성



발전센터, 마포구고용복지지원센터, 마포사회적경제생태계조성지원사업단 등이 활동 중으로 지역 내 예비창업자들과 초기단계 창업자들을 지원하고 이끌 수 있는 인프라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내 지식자본을 활성화하고 축적하기 위한 효과적인 중간지원조직 및 단위가 보다 강화되어야 하며 행정과 연계된 지원인프라 또한 확충되어야하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송파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양천구 해누리센터 등 육성·발굴을 위한 집중형 조직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지역내 성장 가능성이 있는 단위들과 혁신형 공동사업 추진을 위해 장기적으로 지역 내 활성화를 위한 클러스터 등의 인프라 구축 혹은 지역내 자원과의 협업을 통해 지원인프라를 공유·활용하는 접근 또한 부재하며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와함께 지식자본 중 중요한 것이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데이터 등의 축적 및 전략수립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마포의 경우 개별단위를 대상으로 한 지역외부의 연구가 일부 존재하나 지역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한 수요와 공급, 지역 내 실태에 대한 데이터나 분석연구가 부재하여, 향후 관련 지식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이렇듯 마포구내 지원인프라 및 지식자본 전반에 있어서 기존 인프라들과의 활용, 공유는 물론 지역 특성에 맞는 지식자본의 축적을 위해 지역내 인프라의 구축 및 기존인프라 간 시너지 창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다.

### 3) 사회자본의 실태 및 영향

사회적 자본이란, 인적자본들의 신리와 연계 속에서 발생하는 네트워크의 시너지에 의한 영향력을 의미한다. 마포의 사회자본은 가시적이고 구조적인 것보다 비가시적이고 비정형화된 것이 많으며, 신뢰와 협력 등의 가치 중심의 관계형성과 그에서 파생되는 사회자본이 구축되고 있는 특징이 있다. 또한 영역 간 경계가 낮고 지역내 통합과 연대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여 영역, 업종, 부문, 조직형태 등을 넘어선 사회자본 구축에 용이한 지역이다.

현재 마포의 가장 대표적인 민민 네트워크조직은 마포마을넷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기반으로 한 복지네트워크이다. 마포의 경우 수년전부터 민중의 집을 중심으로 동네단체수다모임, 공동신년회, 실무자조찬모임 등의 형태로 자체모임과 준비모임을 거쳐 2013년 상반기 발족한 마을넷은 지역내 복지, 교육, 문화, 공동체, 시민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대표네트워크이다. 이와함께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경우 민-관 협력을 통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지역복지문제 해결 및 협력을 위해 구성된 것으로 총 9개분과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는 복지단체 뿐 아니라 보육, 문화, 지역 단체들이 함께 참여하여 실제적인 지역내 협력을 통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다. 실무자간 교류, 지역릴레이포럼, 민관워크숍, 지역공동모금행사 등을 통해 활발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영역별, 사안별로 느슨하지만 실제적인 네트워크로 방과후, 영유아보육기관과 관련 시민, 복지단체, 사회적 기업 등이 협력을 통해 돌봄분야 사회적경제 활동을 기획,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말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지역내 확대조직구성을 추진 중이다. 교육문화네트워크 '판'의 경우 지역내 교육정보를 모은 온오프라인 소식지발행 등을 통해 경쟁력강화,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

다. 그밖에 도시농업네트워크, 문화예술네트워크, 여성네트워크 등 또한 부문 간 협업과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모임을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다.

사회적경제부문에서는 부문간의 경계를 포괄한 마포사회적경제 네트워크가 2013년 12월 발족하여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기타 복지.시민단체의 사업단, 지원기관 등을 포괄하여 운영되고 있다. 지역내 최근 추진 중인 협동조합협의회, 돌봄네트워크의 경우에도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와 긴밀한 연계 속에 포괄네트워크와 하위 실무네트워크 형태로 구조화를 시도하고 있다. 네트워크 내부적으로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사업형태, 발전단계, 활동배경 등에 따라 네트워크의 속도 및 사업추진방향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지만 관계형성과 협력속에 포괄적인 사회적경제 영역을 아우르는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의 구축과 그를 통한 지역내 공동체의식강화, 실질적 협력강화 등 사회자본의 파생력을 기대하고 있다.

반면 민-민네트워크에 비해 민-관의 네트워크 및 활성화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편이다. 마포구는 일자리창출위원회,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등의 기구를 통해 민간. 현장전문가와 관의 협력과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장은 구축하고 있지만, 실제 형식적인 운영에 그쳐 정책요구, 행정변화 등을 견인하기에 부족한 현실이다. 또한 사회적경제 부문 내의 사회자본 뿐 아니라, 지역 내 일반지역단체, 주민과의 관계와 협력 속에서의 사회자본의 영향력이 중요하다. 이들의 참여 없이는 신규 사회적경제 주체의 육성, 발굴도, 사업의 활성화도 불가능하다. 결국 주민은 지역사회 사회적경제 생태계에서 중요한 소비자, 홍보자, 지지자이자 동시에 잠재적 주체로서 인식되어야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마포구는 사회적경제 생태계인 일반 주민층에 대한 사회적경제 영역에의 참여 확산에 대한 정책. 사업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 일반 주민자치단체 및 모임 등과의 관계형성 및 참여유발, 지역내 일반 기업체, 사업체 등의 이해, 협력추진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직.간접적 주체들을 사회자본화하기 위한 전략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4) 공공정책의 실태 및 영향

공공정책은 사회적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고용정책, 금융정책, 조세정책 등의 정부에 의한 지원정책을 의미하며, 정치인 및 정부관료 등의 인지도 등도 이에 포함된다(김성기외, 2012). 이때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세재지원, 우선구매제도, 사회적기업 육성 등의 지원정책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 때 정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생태계 참여자를 지원하는 조성자, 협력자, 촉매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마포구는 서울시 자치구중 초기인 2009년 10월 사회적기업 육성조례를 제정한 자치구이다. 또한 2010년 7월 전담부서로 주민생활국 일자리진흥과 내에 사회적기업지원팀을 신설하고 전담인력 배치 및 업무연속성 보장 등을 통해 타구에 비해 의욕적으로 지원사업을 시작하였다. 이후 기본적인 사회적경제 지원사업을 비교적 초창기부터 수행해 왔다. 하지만 최근 급속도로 확대되는 타지역의 사회적경제 지원정책에 비해 마포구의 직접적인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 부문의 육성. 공간. 재

정지원 등 정책 및 지원 실적 및 행정. 구의회 등의 관심은 부족한 편이다. 다만, 3선인 마포구청장은 민선6기 지방선거 사회적경제메니페스토협약에 참여하고 주요공약으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설립을 제시한바 있어 향후 지방정부차원의 지원활성화를 위한 추가노력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마포구의 사회적경제 관련 재정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시비.국비로 이뤄지는 사회적기업 지원금과 국, 시비와 구비 매칭사업인 마을기업 지원사업 이외의 별도 재정지원이 크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일자리, 복지 친화적 구정방향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 지원에 대한 계획과 정책을 제시하지 못한 행정부 내부의 장기 기획부재의 문제와 지역내에서 사회적경제분야 거버넌스와 협상을 주도한 공식주체의 부재가 그 원인으로 보여진다. 최근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발족 이후 공식 협상 및 논의를 정례화를 추진 중으로 점진적인 공공정책의 발전적 진화를 위한 지역의 주체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때이다.

또한 선진국의 경우 사회적경제 기업을 통한 사회서비스의 확대가 정부의 공공지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마포의 경우 기존 공공과 민간이 충족시키지 못했던 사회서비스 부문에 있어서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진입과 활동확대를 위한 관심과 정책적 시도가 부족한 상황이다. 바우처사업 공모에 참여하여 경쟁을 통해 선발되는 외에 지자체가 시범적으로, 선도적으로 지역에 맞는 사회서비스 욕구를 발굴하고 이를 역량있는 지역내 사회서비스 제공기업들 혹은 신규주체발굴, 육성 등의 과정을 통해 제공하기위한 정책.제도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공공지원일자리사업 중 일부사업을 지역내 사회적경제 기업활동과 연계하기 위한 사업이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례가 지역내 공식사업화 된다면 민관협력을 통한 사회적경제 지원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이렇 듯 향후 민간주체들 중심의 마포구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사업이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자치구가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으로 생태계 활성화 동력을 제공할지의 여부에 따라서 잠재역량이 풍부한 마포구의 민간자원들이 실제 지역변화와 일자리창출 등을 선도하는 지역사회 구축을 이루는지 그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궁극적인 지역변화와 성장, 복지증진을 위해 공공정책분야의 협력확대를 위한 노력은 필연적인 요소이다.

## 5) 물적 자본 실태 및 영향

물적자본에는 사회적 경제 기업 창업 및 운영에 필요한 금융자본과 물리적 공간 등 기업운영에 근간이 되는 외적 시스템이다. 사회적경제 기업은 창업자의 자체 조달이나 협동조합회원의 공동출자, 공익재단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받고 있다. 운영과정에서는 중앙이나 자치단체의 사회적기업지원자금(경영지원금, 인건비 지원 등)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밖에 중소기업육성자금 활용 및 금융권, 사회투자자금 등의 지원제도활용방법이 있지만, 규모나 시기가 제한적이며 사회적 경제 기업 다수가 영세성으로 인해 접근에 어려움이 있다. 물리적 공간의 경우에는 인큐베이팅을 지원하는 재단등을 통해 공간지원, 창업과정지원이 제공되고 있으며, 일부 공공기관들이 임대에 있어서 우선협상대상으로 비용할인 등을 통해 공간임대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마포지역에서는 사회적경제 주체들을 위해 설치된 별도의 금융적, 물리적 자본은 극히 부족하다. 지역 금융자본에 있어서는 성미산마을 중심으로 개인 간, 마을공동체 단체 간 자금축적 및 대역시스템(대동계, 마을금고)이 성공적으로 운영 중이다. 하지만 본격적인 비즈니스 단계의 사회적경제주체들이 필요한 자금지원의 수준이 아닌, 초기 마을공동체, 개인창업의 씨드머니 지원 정도의 수준이며 마을공동체 내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지역차원의 공식 사회적경제 지원시스템으로 보기에 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마포에서도 사회적경제 기업을 포괄할 수 있는 규모있는 자본형성 및 펀딩, 투자시스템 등 지역자생적인 공동자금조달구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최근 마을기금, 복지기금, 사회적경제 기금이 개별적으로 지역내 관심자 모임 및 상호기금간 협력필요성 논의 등이 시작된 단계이며 향후 보다 각 기금들의 목적, 구성방법 등에 대한 본격적인 자본구축을 위한 시도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행정기금, 지역내 기타 기금 등과의 결합가능성 또한 검토가 필요하다.

물리적 공간지원의 경우에는, 마포구차원에서 사회적경제 영역과 관련하여 지원하는 공간은 고용복지지원센터와 공덕역의 '늘장' 등이 있으며, 기타 인프라의 경우 중소기업지원, 1인창조기업 등을 위한 공간으로 부분적으로 활용가능한 인프라가 있다. 행정에서도 공간물색 및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현재 상태에는 확보된 자원이 부재한 상황이다. 마포의 경우 지역 내에 위치하여 있지만 광역차원의 관리와 정책이 적용되는 DMC산업단지, 홍대문화예술지구, 월드컵경기장 및 최근 국제공모 중인 석유비축기지 등이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가용가능한 물리적 자본으로 광역과 지역이 함께 자원을 공유·활용할 수 있는 방안의 적극적 모색 등을 통해 지역자원화 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지역내 공간활용 및 클러스터를 통한 사회적경제 기업 간의 결합 모델개발 등의 대한 민간의 논의가 추진 중인 상황으로 이에 대한 지역차원의 참여확대와 민관협업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 분야의 결집된 인적자본과 경험적역량 등이 지역내에서 발휘될 수 있는 거점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향후 물리적 공간 지원이 지역차원에서 확보된다면, 이를 거점으로 한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용이하며 신규사업체 육성, 지역정주단체의 타지역 이주 예방 등의 기대효과가 예상된다.

#### 4. 결론 및 시사점

여기까지 마포구 사회적경제의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마포구 내의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현황에 대한 이해 및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세부특성과 이를 통해 도출되는 과업 등을 확인하고 정리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몇가지 실천적 제안사항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민간의 내발적, 자생적 역량에 기반을 둔 마포의 인적자본 및 사회자본은 향후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토양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마포에서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는 가장 우선적으로, 인적자본과 사회적자본의 강화에 주력하여야할 것이다. 즉, 지역 내 주체강화 및 주체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최우선과업으로 삼고 접근해야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개별기업중심으로 산발적으로 추진되던 활동을 지역화와 네트워크 전략으로 집약함으로써 지역화와 협업을 통한 지역사회

임팩트강화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지역 안으로 들어오게하고, 이를 통해 개별 기업들이 보유한 콘텐츠와 역량이 마포 안에서 우선적으로 발휘되고 공유됨으로서 지역문제해결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음은 물론, 협력과 연대, 사회적경제 간의 융복합 등을 통해 보다 혁신적이고 대안적인 비즈니스모델의 도출이 가능할 것이다. 결국 이것은 개별기업의 지속가능성강화와 지역내 사회적경제 활성화, 양측면 모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중요한 파트너로 내부이해관계자간의 관계형성 및 협력을 기본으로 하되, 지역 내 기타 조직, 기업, 일반주민단체, 교육기관 등 다각적인 협력과 연계를 통해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범주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곧 우호적 지지자, 소비자, 투자 및 후원자, 봉사자의 확보인 동시에 마포에 부족한 지역기반 신규주체발굴의 기회가 될 것이다. 지역내 다양한 주체들과의 내부거래, 공유경제의 활성화 노력과 함께 협력, 융복합사업추진 또한 가능할 것이다. 지역내 영역, 시장의 충돌 및 활동방식의 차이, 상호 이해 부족 등의 어려움이 예상되나, 지역사회의 변화와 혁신, 복지증진이라는 공동의 목적아래에서 개별 주체간의 역할과 미션의 공유, 협력과 연계 노력은 사회적경제 기업은 물론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대안주체 형성에 기여할 것이다.

셋째, 마포의 민간역량과 사회적자본의 활성화가능성 및 정책지원의 중요성을 행정이 인지하고 적극적 파트너로서의 민관협력과 정책지원을 추진해야할 것이다. 즉, 자치구 차원의 '지역 사회적경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근거한 적극적인 지원노력이 필요하다. 사회적 경제 지원이 행정공유의 사무로 확정하고, 균형있는 거버넌스와 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 이해력 증진을 위한 노력, 업무의 지속성 담보와 전문성있는 인력의 확보 등의 노력이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사회적경제영역은 물론 지역산업, 지역재생 및 복지,교육 등의 다양한 영역과 긴밀한 연계와 부서 간 장벽을 넘는 사회적경제 정책추진을 통해 지역과 사회적경제가 함께 동반성장할 수 있는 기회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마포 지역에서 다수의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인프라와 금융자본의 형성이 시급하다. 특히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사업지원금의 목적 뿐 아니라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자생력강화 등을 위해서도 기초자금조성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지역 내에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초기단계부터 지역내 자본조성을 위한 논의 및 중장기계획수립이 필요하며, 동시에 지역내 활용가능한 물리적 인프라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사회적 경제 클러스터 및 센터, 지역재단설치 등의 단계적 전략수립과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사회적경제가 지역 내 대안적 문제해결과 변화의 주체라는 새로운 위상을 만들어가기 위한 조직내부부터 지역주민에게까지 협동과 상생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념과 가치가 공유되고 확산되게 하기위한 혁신적인 전략마련이 필요하다. 지역 내에서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활동이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되고 그 의미나 성과가 강조될 필요가 있으며, 지역공동으로 사회적경제의 위상정립 및 확산을 위한 대안적 가치의 고민, 공론화의 장마련, 학습, 지역사회 임팩트강화를 위한 협력사업의 추진 등이 필요하다. 관련자들만 아는 사회적경제 단위 내부에서의 담론과 실험만에서 그치지 않고, 지역내 실질적 체감도를 증진하기 위한 지역사회 차원의 협업이 필요하다. 그러할 때 사회적경제는

개별단위, 네트워크를 넘어 지역사회내에서 새로운, 대안적 체계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 마포구 사례를 통해 지역단위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현황 및 활성화 방안을 고찰하였다. 본 고찰은 사회적경제 생태계에 대한 관심과 활성화 논의가 진행 중인 마포구 지역사회 안에서 이뤄진 초기단계 고찰로 생태계 현황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제공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내 사회적경제 지원방안 모색의 실천적 기초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지닌다. 현재 진행 중인 사회적경제생태계 조성사업들을 통해 향후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지역현황분석 및 활성화방안에 대한 실천과 연구가 병행됨으로써, 지역의 사회적경제가 지속가능한 지역변화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게 되길 기대해 본다.

본 고찰을 통해 지역의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활성화는 지역사회 생태계의 구성과 특성이 가장 큰 변수이며, 이에 대한 면밀한 이해와 분석에 기반하여 지역내부의 자원 간 연계와 협업을 통해 가능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결국 사회적경제기업 개별 당사자는 물론 그들 간의 네트워크, 행정, 주민, 시민사회, 복지단체, 기업 등 지역내 다양한 주체들이 해당 지역의 문제와 욕구를 인식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구성 주체로 함께 대안적 운동으로서 협력과 연대를 통해 함께할 때 사회적경제는 지역 내 대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별로 지역의 현황 및 역사, 고유한 생태계의 특성에 대한 연구가 보다 확대되어 현장의 실천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 마포구고용복지지원센터(2014), 마포구 사회적경제 실태분석보고서, 마포사회적경제생태계조성지원사업단
- 민현정 (2013), 창조경제를 통한 연대와 상생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방안, 광주발전연구원
- 김성기 외(2012), 한국사회적기업 생태계 연구보고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이영한 외(2011), 서울시 사회적기업 관련 정책의 연계 방안 :사회적기업, 자활공동체, 마을기업 등을 중심으로, 서울시의회
- 이영환 외(2010), 경기도 사회적기업 발전전략 연구